

순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대응전략·주요 조치사항 정리...매뉴얼화하여 공유

2차례 협의 거쳐 시나리오 작성...2회 모의훈련 계획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훈)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17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청 직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가정하에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지역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부서에서 일선학교와 순천교육지원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2가지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상황 별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전략과 주요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어느 직원이라도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여 공유하였다.

특히 금번 시나리오는 탐장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 모의훈련 계획 상황을 공유하면서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또한 '교육청-순천시청-보건소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제상황에 준하는 공동대응방안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중점 사항은 순천시 안전총괄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응체계 일원화에 중점을 두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박형주 주무관은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개선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체계화 할 수 있었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길훈 교육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교육지원청, 전문적학습공동체 대표자 온라인 연수

코로나19 확산방지·교사들의 출장부담 최소화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여수 전문적학습공동체 238팀(학교 안 183팀, 학교 밖 55팀)을 대상으로 7월 6일~7일, 10일, 17일, 4일간(총6회)에 걸쳐 대표자 연찬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당초 집합연수로 계획된 연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교사들의 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상으로 전환하여 운영되었다.

이번 연수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유·초·중 학교급별, 유사한 영역으로 팀을 묶어 6회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운영 사례들을 공유하며, 운영 협의회를 갖

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진행된 온라인 연수에 교사들은 다소 낯설고 어색해 하였으며, 일방향 인터넷 강의를 듣는 느낌이 있었으나, 각 학교의 운영 상황을 나누는 시간에는 온라인 공간이라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채팅창을 통한 강의피드백, 강의소감 작성하기에도 참여하였다.

향후 여수교육지원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만남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영상시스템 활용 관련 개선사항(참석자 사전연수, 참석자 지정규모, 동영상 탑재 기능, 문서 다운로드 기능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대 교육장은 코로나 19이후 교육현장은 비대면 만남이라는 새로운 소통방법과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앞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컨설팅, 연수 등을 확대해 비대면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안전한 목포 만들기 로드페인팅 프로젝트

각종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목포시 문태고등학교(교장 김승만)는 지난 15일 오후 학내 안전동아리인 문태 안전지킴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인근 지역 초·중학생과 함께 목포교육공동체를 이루어 안전한 목포 만들기 로드페인팅 프로젝트를 성료하였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7대 안전 영역이라 함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 영역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로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규 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

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건, 기타 327건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에게 '안전'을 더욱 더 강조하라고 말하고 있다.

사전에 학생들이 제작한 글자판 ▲여기말고 신호등보자 ▲주위를 살펴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무단횡단NO 신호등YES 등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충분했다.

로드페인팅 프로젝트에 참여한 문태고등학교 2학년 김유민 학생은 "내 꿈은 경찰이다.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차에 동아리에서 이런 특별한 활동에 나서게 되니 무척이나 기대되고 설렘었다."라며,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생들과 팀을 이루어 길거리에 안전을 되새기는 문구를 페인팅해나갔는데,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기특하다고 칭찬해주셔서 너무 보람찼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경찰'이란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설정하게 되었고, 우리 지역 안전을 챙기는 안전지킴이가 되어야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활동형 브로슈어 '즐거봐요, 광주교육'

틀린 그림 찾기·보드게임 등 참여 활동 중심 구성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형 브로슈어 '즐거봐요, 광주교육'을 제작해 관내 초·중·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에 3,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작된 브로슈어에는 광주의 대표 역사 교육 탐방지와 마을 배움터, 교육청과 직속기관, 역사 깊은 학교 소개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 학생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세로 퍼즐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보드게임 등 참여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교육청 한두석 공보담당관은 "이 브로슈어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이 광주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광주교육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